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 순창군, 21일~9월 12일 신청 접수...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순창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 26,792명이 해당된다. 지급액은 △일반군민 1인당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5만원 △기초수급자는 45만원이다. 농촌인구 소멸지역으로 일반 지역보다 5만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신청 접수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되며,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언제든지 카드사 홈페이지

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 시 무기명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전체 대상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전 제작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대상자 자격 검토, 지급 결정, 콜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해당 군민이 읍·

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순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문안은 순창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3-650-1311), 국민콜센터(110),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군민 여러분께서 불편함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발대식

### 남원 춘향장학재단, 정보 공유 등 사전교육 가져

남원 춘향장학재단은 지난 10일, 2025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발대식 및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17박 18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머레이스베이 인터미디엇 스쿨에서 진행될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련, 발대식에서는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최경식)이 미래

인재로서의 성장과 도전을 격려하며, 참가 학생들이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폭넓은 시야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사전교육에서는 현지 연수 일정과 프로그램 소개, 생활 수칙, 홈스테이 예절, 준비물 안내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



2025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발대식 및 사전교육. 최영일 순창군수(가운데)가 축사를 하고 있다. 최경식 이사장은 "학생들의 글로벌 경험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임실의 자부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축산분야 폭염 대응 총력

남원시는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정비와 기자재 지원, 현장 지도 등 다각적인 폭염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6개소 농가에 환기팬, 안개 분무기, 지붕 스프링클러,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했다.

또한 축산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가 대상 문자

알림,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한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했다.

남원시는 여름철 고온 기간인 9월까지 지속적으로 기상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폭염 대비 준비를 지원하고, 폭염 대책 상황실 상시 근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폭염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일수가 길어지면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폭염 및 하절기 축산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하고, 특히 폭염에 취약한 가축 농장의 시설, 장비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임실군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3개월간 매달 30만원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이며,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

장려금 희망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서와 고용보험 공단에 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지난 10일 심민 군수 주재로 각 국실과장, 축제 제전위, 대행사, 유관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임실N치즈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 임실N치즈축제 특별함 선사 총력

### 준비 상황 보고회 열고 분야별 추진계획 점검

임실군이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압도적인 특별함을 선사하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심 민 군수 주재로 각 국실과장, 축제 제전위, 대행사, 유관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임실N치즈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담당 분야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광객 안전대책과 프로그램 운영, 축제장 구성 등 축제 전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임실N치즈축제가 11회째를 맞고, 임실 방문의 해에 열리는 만큼 더욱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해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은 물론, 내방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더 특별하게 5일간 열릴 2025 임실N치즈축제는 주요 관광지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성수

산, 오수의견관광지 등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주민 참여도를 높여면서 관광객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추진된다.

주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어 △임실N 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축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푸드체험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형 팔러자 △저지층 원유 이용 프리미엄 속성치즈 홍보 등 10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이에 더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이 올해도 축제장 일대를 수놓으며, 유럽형 장미원과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이자 축제 11회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보일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경찰서, 가출 청소년 신속 발견 유공 표창 수여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는 지난 10일 가출 청소년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호 조치한 공로로 순화파출소 소속 경위 백일경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백일경 경위는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할 당시 관리했던 서울 지역 청소년과의 연락망을 적극 활용해 가출 청소년의 위치 확인, 보호조치를 통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이정호 서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보호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치안 활동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표창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순창경찰서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 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휴가철 공중화장실 안전·편의 대책 추진

임실군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계 휴가철 공중화장실 안전·편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공중화장실 188개소에 대해 방역 지침 이행, 발치 및 안전사고 예방, 위생·청결 강화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 시설 작동 여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장애인 화장실의 시설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하계 휴가철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찾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청결 관리와 편의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이백면, '제48주년 충혼제' 거행

남원시 이백면과 이백면 발전협의회는 지난 11일, 1961년에 발생한 수해로 희생된 주민을 추모하는 제48주년 수해 희생자 위령제와 6·25 전란 시 참전한 지역출신 전사 51위의 넋을 기리는 '제48주년 충혼제'를 효기리 위령비와 충혼비에서 거행했다.

이백면 수해 참사는 1961년 7월 11일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던 중에 18만톤 규모의 효기제 제방이 붕괴되어 효기·과리·최동 등 여러 마을을 덮침으로써 110명의 사망자와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190여채가 파손되는 사상 유례가 없는 큰 재난으로, 이백면 주민들은 2006년 이백면



효기리에 위령비를 세우고 매년 7월 11일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또한 6·25 전란 시 참전한 지역출신 전사 51위의 넋을 기리는 제48주년 충혼제 추념 행사가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